

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

6대 국방운영중점 추진계획



대한민국 국방부
Ministry of National Defense

목 차

- ※ 6대 국방운영중점 1
-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, 대응역량 확충 2
- ② 국방혁신 4.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5
- ③ 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, 국방협력 심화·확대 8
- ④ 안전·투명·민군상생의 국방운영 10
- ⑤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11
- ⑥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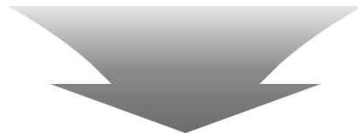
윤석열정부의 국방정책

< 지향점 >

- ① 쏘방위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
⇒ “힘에 의한 평화” 구현
- ② 안전하고, 공정하며, 사기높은 병영환경·문화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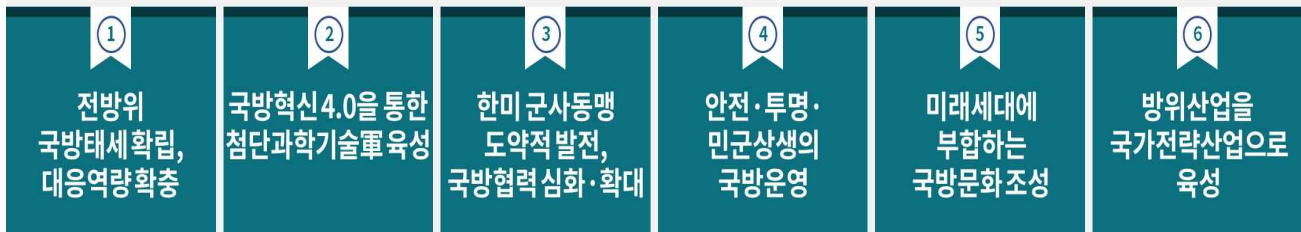
< 구현방향 >

- ① 「국방혁신 4.0」을 통해 軍 체질·구조를 혁신, AI 기반의 과학기술軍 육성
- ② 안보관·대적관 재정립 등 장병 정신전력 강화, 사기·복지 증진
- ③ 韓美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 등 동맹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, 이와 동시에 우리 軍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향상
- ④ 사회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국방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



국방운영목표 : **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**

6대 국방운영중점



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, 대응역량 확충

□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

- 현장 중심의 경계 및 즉응태세 확립
 - * 감시·경계작전 보완대책 추진 및 현장 대응능력 숙달
- 北 특이징후 식별시 선제적 작전태세 향상으로 즉각 대응 보장
- 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추진
 - * 감시·감지·통제시스템 개선

□ 北 핵·미사일 위협 대응태세 확립

- 긴밀한 한미 공조 下 연합정보감시태세 유지
 - * 北 미사일 발사를 100% 탐지 및 대응
- 北 징후 포착시 韓美 탐지·요격자산 증가 운용 등 즉각 대응태세 유지
- 北 핵·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집중 보장

□ 정보감시정찰 (ISR) 역량 확충

- 北 핵·미사일 상시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 수집자산 확보
- 北 미사일 발사 징후 조기탐지를 위한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
- 다양한 영상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융합·분석·전파체계 확보

□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·태세 확충

- 유사시 자위권 행사를 위한 킬체인 능력 확보
 - * 전술지대지유도무기, 장보고-III Batch-II, F-X 2차 사업 추진 등
-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
 - * 탄도탄 탐지레이더, 중·장거리 요격 미사일 전력화 등
- 압도적 대량응정보복능력 강화
 - 북한 쏠 지역 타격 가능한 지·해·공 고위력·초정밀 미사일 확충
 - 특수전 부대의 정찰·타격능력 보강, 수송수단 확충

□ 北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

- 北 장사정포 위협 탐지능력 강화
 - * 대포병탐지레이더-II 전력화,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더 개발
- 정밀·대량·집중 타격능력 강화 등 대화력전 능력 확충
 - * 전술지대지유도무기, 함대지유도탄, GPS 유도폭탄 등
- 「장사정포 요격체계」 조기 전력화
 - * 北 미사일·장사정포 섞어쏘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능력 보장

□ 주변국 위협 대비 원칙적·단호한 대응태세 유지

- 주변국 군함의 我 관할해역 활동 대비 적극적인 기동 탐색, 항공초계 실시
- 주변국 군용기 KADIZ 진입에 대비 감시 및 즉응태세 유지
 - * 감시강화 및 대응전력 적시적 운용, KADIZ 진입시 단계별 조치 시행준비 등
- 우발적 충돌, 위기확대 방지를 위한 국방협력 노력 병행
 - * 중·러와 既 구축 채널을 통한 통신 활성화 및 직통망 추가 설치

□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

- 제대별 필수 훈련 숙달을 통한 전투태세 유지
 - * 지휘관 중심의 실전적·성과위주 교육훈련 시행
-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훈련 강화 및 확대
 - * 상당기간 취소·연기 또는 축소·조정되었던 전구연합연습 및 연합아외기동훈련 정상화
- 실전적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가속화
 - * 소부대 과학화 훈련체계 야전확대 연구, 가상현실 적용 훈련체계 구축

□ 장병 정신전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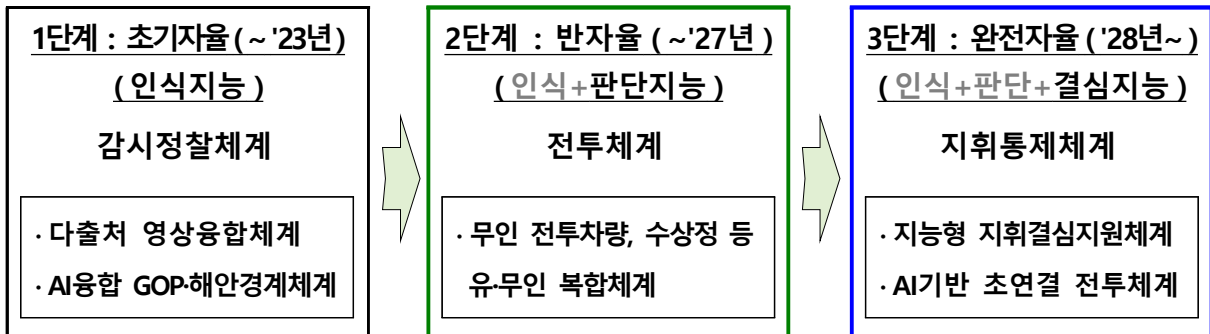
- '敵'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대적관 교육 강화
 - '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敵'으로 명기한 교재 하달, 교육 시행 중
 - 전쟁기념관 內 北 도발 사례에 대한 상설 특별 전시관 개설(12월)
- 사생관·군인정신 확립, 대적필승의 신념 고취
 - * 안보현장 견학, 체험 교육, 전투영화 활용 토의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
- 국방 TV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시사안보 교육 개선
 - * MZ세대 선호 고려한 교육방식 적용('꼬꼬무' 형식의 '그날, 군대이야기' 신규 제작 등)
- 정신전력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「국방정신전력원」 기능·역할 강화

2 국방혁신 4.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軍 육성

□ 국방 소분야에 AI 확대 추진

- AI 기술수준 및 발전단계 등을 고려,

① 감시정찰체계 → ② 전투체계 → ③ 지휘통제체계로 적용 확대



-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, 軍은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'개방형 민군협업의 국방AI 생태계' 조성
- 강력한 Top-Down 방식 추진체계를 통한 추동력 확보
 - 각 軍·방사청·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AI 업무를 통합·연계
 - 민·관·군 협업 下 국방 AI를 선도하는 총괄기관 창설
 - * 국방 AI책임관 지정 및 「국방AI센터」 신설 등
- AI R&D 집중 투자 및 사업화를 통해 국방 소 분야 혁신
 - 국방AI R&D 예산을 점진적 확대
 - 미래 전장의 핵심요소인 유·무인 복합체계, 지휘통제체계 중심 집중 투자
- 국방AI 발전 지속성 보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
 - 민간 AI대학원과 협업, 軍내 AI 확산을 선도할 AI 전문인력을 향후 5년간 1,000여명 양성 후 적재적소에 배치·활용
 - 과기부와 협업 下 민간의 우수 교육컨텐츠를 제공하여, 장병 디지털역량 강화
 - * 비전 선포 및 시범부대 개소(6사단, 7.4.) / 연도별 교육시범부대 추가 구축 예정
 - AI 데이터 체계적 구축, 고성능 컴퓨터·초고속 통신망 등 인프라 확충
 - * 국방지능형플랫폼('24년, 300억), 국방광대역통신망('24년, 1조원, 전송속도 23G → 100G)

□ AI 기반의 유·무인 복합체계로 단계별 전환

- 3단계 국방AI 발전과 연계한 단계적 유·무인 복합체계 구축 추진
- 예산, 전력확보 등을 고려하여 軍별 시범부대 운용 후 확대 적용
 - 육군은 지상전투, 해군은 기뢰제거작전, 공군은 무인편대기 운용, 해병대는 상륙작전에 유·무인 복합체계를 시범 운용
 - 시범운용 결과에 따라 각 軍별 특성에 부합된 유·무인 복합체계 확대 추진

육군 Army TIGER* 여단	통제차량(유인) + 전투차량(무인), 공격헬기(유인) + 드론(무인)을 통합운용하여 공격력과 생존성 검증 * 25사단 70여단을 시범부대로 운용 중
해군 제5전단	소해함(유인) + 수중자율기뢰탐색체(무인)을 통합운용하는 유·무인 복합 기뢰제거작전 수행 검증
공군 제20전투비행단	전투기(유인) + 저피탐무인편대기(무인)를 통합운용하는 유·무인 편대기 운용 가능성 확인
해병대 제1사단	상륙돌격장갑차(유인) + 장애물 개척로봇(무인)을 통합운용하는 상륙작전 능력 검증

* Army TIGER : Transformative Innovation of Ground forces Enhanced by the 4th industry Revolution technology

- 실증시험, 테스트베드 제공, 부처 협력사업 추진 등 민·관·군 협력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
 - 민군 드론·로봇 실증 시험장 구축 및 시범운영 (~ '23년)
 - △ 국산화, △ 작전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표준화, △ 우수한 상용제품의 신속한 軍 도입·운용을 위한 민군협업 적극 추진
 - 연구개발, 시험평가 등의 절차를 개선하여 유·무인 복합체계 신속획득을 위한 '한국형 획득프로세스'로 발전

□ 우주, 사이버, 전자기 영역 작전수행체계 발전

- 국방 우주 정책·전략 개념 수립, 우주전력 확충
* 「국방우주전략서」 작성, 軍정찰위성 등 우주전력 지속 증강
- 국방 사이버전력 발전계획 수립 및 전력 확충
* 사이버전장관리체계, AI 기반 추적·대응체계 구축 및 확대
- 합동 전자기스펙트럼 능력 확충
* 전자기 환경 및 전쟁양상 변화에 대비한 전투발전요소별 종합발전 추진

□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軍구조로 개편

- (전략·개념) 미래 전장환경 고려,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발전
- (지휘구조) 미래 연합방위, 쏠 영역 합동작전 등을 고려 지휘구조 재설계
* 합참·각 軍 본부 기능·구조 최적화, 다양한 합동부대 편성 등
- (부대구조) 새로운 작전개념·첨단무기체계 운용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발전
- (전력구조) High-Low Mix 개념 기반 질적 우위의 전력구조로 재설계
* 게임체인저, AI 기반 유·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전력 확충
- (병력구조) 간부 비율 증대, 전문인력 확대 등 미래 병력구조 재설계

□ 효율성·적시성에 기반한 전력증강체계 정립

-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전력증강 정책·제도 개선
* 합리적 획득제도 개선방안 마련 ('22년)
- 첨단과학기술 軍 구현을 위한 국방부 및 관련 기관 조직개편
 - (1단계) 국방개혁실을 첨단기술 컨트롤 타워로 전면 개편
 - (2단계) 전력증강 프로세스 발전에 필요한 기능·역량 집중
- 국방분야 R&D 거버넌스 구축
* 국방부 주도로 합참, 방사청, 각 軍, 민간연구기관 등 다양한 참여주체의 역량을 통합·조정하여 첨단기술의 최단기간 전력화 방향으로 추진

※ 체계적 이행을 위해 「국방혁신 4.0 기본계획」 수립 추진

③ 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, 국방협력 심화·확대

□ 확고한 韓美 연합방위태세 강화

○ 연합야외기동훈련 정상화

- 연대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
(연합항모강습단훈련, 연합상륙훈련 등)
- 전·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, 제대별·기능별 야외기동훈련 집중 시행
 - * △ '22년 하반기 :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1개,
 - △ '23년 전반기 : 연합대잠전훈련 등 21개

○ 전구급 연합연습 강화

- '22년 하반기 연합연습시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의 통합 시행으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 제고
- 연습명칭을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「UFS (Ulchi Freedom Shield, 을지 자유의 방패)」로 변경

구분	전반기	후반기
성격	연합연습 + 연합야외기동훈련	연합연습 (군사) + 을지연습 (정부)
명칭	FS (Freedom Shield) * 자유의 방패	UFS (Ulchi Freedom Shield) * 을지 자유의 방패
의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미동맹의 변하지 않는 핵심가치인 '자유' 수호 의지 표현 • 'Shield (방패)' 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상징하고, 방어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연합연습의 정당성을 강조 • 정부 연습 (을지)과 군사연습 (자유의 방패) 통합시행을 상징 	

* UFL ('76 ~ '07년) → UFG ('08 ~ '18년) → CCPT ('19 ~ '21년) → UFS ('22년 ~)
 Ulchi Focus Lens Ulchi Freedom Guardian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

○ 주한미군 실사격 훈련여건의 전향적 개선

- 수성 (포항), 승진·영평 (포천) 훈련장 주변 민군갈등 적극 해소
- 국방종합훈련장 구축을 통한 훈련 소요의 실질적 충족
 - * '23년 특별법 제정 추진

○ 성주 사드기지 조기 정상화 추진

- * 상시 지상접근권 보장, 잔여부지 공여, 환경영향평가 조기 완료

□ 北 핵·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·대응을 위한 韓美 공조 강화

- 韓美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 심화·발전
 - * 韓美 정보공유·위기협의·기획·실행 체계 발전
- 美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
 - * 확장억제전략협의체 (EDSCG) 실질적 가동, 억제전략위원회 (DSC) 활성화
- 연합 미사일 대응태세 강화
 - * 미사일정책협의체 (CMWG) 신설, 미사일방어 공동연구

□ 韓美 국방협력 수준 격상

- 韓美 국방당국 간 정책협의 활성화를 통한 동맹발전 추동력 유지
- 韓美 기술협력 확대 ⇨ '기술동맹'으로 발전
 - * 「韓美國방과학기술협의체」 신설 추진, 韓美 과학기술자 교류 및 공동연구 개발
- 韓美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
 - * EDSCG 재가동,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, 美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및 협의절차 정립, 연합연습에 美 전략자산 참가 등
- NATO 정상회의 계기로 한·미·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
 - * 北 핵·미사일 위협 대응·억제를 위한 3국 협력 증진

□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

- 韓美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시 전환한다는 원칙 견지
- 「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(COTP)」에 의거 체계적·안정적 추진
 - * COTP 수정1호 부록·별지 개정 완료, 하반기 연합연습시 미래연합사 FOC 평가 시행
- 우리 軍 핵심군사능력과 北 핵·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조기 확보
 - * COTP 능력 공동평가, 결과보고, 능력확보 과업의 체계적 추진·관리

□ 국방교류협력 심화·확대

- (일본) 공동의 안보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안보협력 발전
* 국방부·각 軍 간 고위급 교류, 정례회의체 운영 재개 등 국방협력 정상화
- (중국) 군사적 신뢰 구축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협의체계 마련
* 국방협의체 정례화, 직통전화의 실질적 운용 등 제도화 노력 지속
- (아세안) 호혜적·실용적 국방·방산협력 체계 구축
* 개별 회원국별 맞춤형 국방협력 추진, ADMM-Plus를 통한 다자협력 강화
- (NATO)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
* NATO 주관 연합연습 참가, 실무 군사협의체 개설, 화생방·사이버 분야 협력 강화

4 안전·투명·민군상생의 국방운영

□ 안정적 병력충원 및 효율적 인력관리

- 병역자원 수급전망 분석 및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 단축방안 강구
- 유·무인 복합체계 발전과 연계하여 과학기술 전문인력 확대
-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한 간부 획득·운영 제도 획기적 개선
* 인력획득·운영 종합발전계획 수립,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추진 등

□ 軍 특성에 부합된 의료체계 구축

- 응급후송체계 강화를 통한 응급치료 골든타임 보장
* 의료종합상황센터 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('24년), 의무후송헬기 추가 전력화('27년)
- 국군외상센터 역량 강화를 통한 외상환자 軍 자체 진료종결 능력 확보
* 민간병원 협력 강화 및 단계적 확대 추진(30병상, 軍 환자 → 60병상, 軍+민간환자, '26년)
- 원격진료 확대, AI 기반 진단시스템 등 軍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 개선 추진

□ 국민권의 증진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지원

- 규제완화 및 지자체·지역 주민과의 민군상생 노력 지속
 - * 산재한 군사시설 통폐합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적극적 완화,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, 국방부-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(연 2회)
-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정·투명한 軍 공항 이전 추진
- 반도체 분야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 확대 ⇨ 국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여
 - * (전문연구요원) 반도체 분야로 인원 집중 배정을 위해 기존의 감축계획을 조정하는 등 과기부, 교육부와 적극 협의
 - * (산업기능요원) 반도체 현장인력 부족소요에 중점 배정, 중기부와 긴밀 협조

5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

□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보상 강화

- 병역의무 이행 보상 목적으로 '병 봉급 (병장 기준, 월 150만원) + 자산형성프로그램 (월 55만원)'을 결합 '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
- 각종 수당 현실화, 숙소 개선 등을 통해 직업군인 복무만족도 제고
 - * 소대장·주임원사 활동비 및 주택수당 현실화, 軍 주거시설 개선사업 지속 등
- 전사·순직군인의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
 - * 「군인사법」, 「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

□ 장병 기대 수준에 맞는 의식주 개선

- 장병의 건강과 선호도를 고려한 급식 만족도 향상
 - *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개선, 기본급식비 인상, 급식 환경 개선 등
- 장병 전투생존성 보장을 위한 개인 전투장구류 개선
 - * 방탄성능과 착용감, 호환성을 개선한 방탄헬멧, 방탄복 등 지급
- 병영생활관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 ~ 4인 기준실로 개선
 - * 연구용역 (~ 11월), 시설 기준 개정 (12월), 연차별 계획 수립 ('23년)

□ 사회변화를 반영한 복무환경 개선

-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 장병의 특성을 고려한 복무환경 조성
 - *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, 휴가 산정방법 개선 등
- 전투임무에 최적화된 체력단련 프로그램 개발, 시행여건 보장
 - * 국군 전투체력 개발센터 운영, 전투체력단련 지도자(연 200여명) 양성
-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제도 활성화를 통한 일-가정 양립 지원
 - * 軍 어린이집 확충('22년 147개소 → '25년 164개소)으로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

□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 확대

- 국방업무의 전문성·연속성 제고를 위해 비전투분야 군무원 확대
 - * 비전투분야 군무원 확대('22년 4.5만여 명 → '27년 4.7만여 명)
- 민간인력(민간조리원·시설관리원 등)을 적극 활용
 - * 공무원근로자('22년) : 1.5만여 명
- 병사 자기계발 여건 향상을 위해 민간 아웃소싱 가능 영역 추가 발굴
 - * 민간전환 성과평가('22년) → 정책연구 및 군별·분야별 시범적용('23년) → 아웃소싱 적용 영역 확대('24년 ~)

□ 軍 인권보호체계 강화

- 軍 인권보호관과 협력하여 실효적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대책 마련
 - * 軍 인권보호관 조사 여건 보장(부대출입, 사망사고 조사입회 등), 인권교육 공동기획 등
-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체계 강화
 - * 성폭력 실태조사(3년 → 매년 전수조사),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(군단급 → 사단급)
- 軍 사법개혁에 따른 공정하고 신뢰받는 軍 사법제도 정착
 - * 장병 인권과 軍 지휘여건 보장이 조화되도록 관계기관 협력

6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

□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 강화

- '방위산업발전 협의회' 확대 운영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공고화
* 기존 협의회 의제 및 참석기관을 확장, '방위산업발전 범정부 협의회'로 개편
- 재외공관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방산수출 지원 역할 강화
- NATO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유럽국가와의 실질적 방산협력 추진
* 駐NATO 대표부 內 국방 주재관 직위 신설

□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발전

- 수출 유형별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를 마련하여 구매국 요구에 신속 대응
* 완제품, 공동개발, 기술이전 등 수출 유형별 표준 지원사항을 제도화
-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으로 수출 확대
* 구매국의 외교·획득계획·경제·산업기반 등을 분석 후 맞춤형 전략 수립
- 군용장비 임대, 대응구매 등 수출방식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□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

- 우주 등 국가첨단과학기술 개발 선도를 위한 방산기업 지원 확대
- 첨단 국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
* '방산기술혁신펀드'를 통한 기업 금융 지원,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확대 등
- 방산기업의 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한 R&D 규정의 합리적 완화

□ 韓美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

- 美 공급망 참여와 공동개발 촉진을 위한 '국방상호조달협정' 체결 추진
- 韓美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효율성·적시성 제고
* 韓美 국방과학기술 고위급 정례 협의체 신설 추진